



■ 자기 구원과 자기 파괴

— 소르 후아나와 전해린

김 요 한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가 대유행이다. 2009년 4월 처음 멕시코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여 미국, 캐나다 등으로까지 확산된 신종 플루는 얼마 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세가 만만치 않다. 하루에도 몇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벌써 마흔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시월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4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는 밝혔다. 시시각각 죽음의 위협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1695년 그해에도 멕시코 땅에는 신종 플루보다 더 지긋지긋한 페스트(역병)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이미 1692년부터 시작된 페스트는 그해까지 벌써 네 해째 인간의 삶을 유린했다. 쥐벼룩에 의해 감염되는 페스트는 발열, 오한, 두통, 객혈을 일으키고 구토, 설사, 호흡부전을 유발해 급기야 환자가 의식을 잃고 쇼크로 죽게 되는 무시무시한 역병이다. 중세 때 흑사병이라고 일컬은 페스트로 인해 한때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중세를 무너뜨리고 근대를 여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했

다고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페스트다.

멕시코를 강타한 페스트로 수녀들이 바빠졌다. 17세기의 식민지 멕시코에서 제 구실을 한 기관이란 정부와 가톨릭 교회였으니 국난에 처해 교회가 앞장서고 수녀들이 발벗고 뛰어든 것은 당연한 일. 그 와중에 산 헤로니모 수도원에 속한 소르 후아나 이네스 데 라 크루스 수녀는 밤낮으로 몸을 혹사했다. 아픈 사람을 간호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달래 주고, 죽은 사람을 땅에 눕혔다. 그리고는 자기 또한 감염되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7세기가 끝나가던 1695년 4월 17일의 일이었다. 1651년 11월 12일 태어나 마흔 세 해 하고도 다섯 달, 그리 길지 않은 생애를 뒤로 하고 그는 존엄한 죽음을 맞았다.

소르 후아나가 수도원의 좁은 골방에 남긴 것은 얇팍한 기도책 몇 권이 전부였다. 불과 몇 해 앞까지만 해도 ‘자기만의 방’에 사천여 권에 이르는 책을 소장하고 온갖 과학실험 기기와 악기를 지녔음을 그의 전기를 통해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의 소박하고 자기희생적인 죽음은 매우 뜻밖이다. 그는 한때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시, 희곡 등 왕성한 문학 작업을 벌여 왔고 신학의 영역에서는 당대의 영향력 있는 세력, 특히 예수회 사람들과 뜨거운 논쟁을 벌여 왔다. 그러던 그가 생명처럼 아껴 온 책과 소유물을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에 모두 내다 팔고 페스트에 맞서 싸우다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지성의 수호자에서 거룩한 성자로의 기막힌 변신이다. 그의 삶의 마지막 나날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소르 후아나의 비범한 삶

“여성이 자기만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꼬박 80년 전인 1929년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에서 그렇게 주장했다. 당대의 일반 여성들에게 자기만의 방이란 현실과 아득히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오늘날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삼백 년이 훨씬 넘는 식민지 시대 멕시코에서 이미 버지니아 울프도 울고 갈 만큼 소르 후아나는 ‘자기만의 방’을 차려놓고 있었다. 그것도 신과 ‘혼인’한 수녀의 몸으로.

소르 후아나는 자기가 몸담은 수녀원 안에 마련한 공부방 겸 도서관에 당대 유럽의 선진 지식과 인류의 유산을 소장했다. 그리스도교 교부들(아우구스티누스, 크리스소스토무스, 아퀴나스 등)의 책은 물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그리스 철학자들의 책이 서가 한 쪽에 놓여 있었다. 그는 아리스토파네스, 에라스무스, 발타사르 그라시안(1601~58, 그라시안은 소르 후아나보다 50년 앞서 태어난 동시대 사람이었다)을 읽었고, 블레즈 파스칼(1623~62, 파스칼 또한 당대의 천재였다)의 전기를 읽었다. 구석에는 천체 관측용 망원경, 지구의 등 과학실험 기기와 악기 등이 있었다. 소르 후아나의 도서관은 그 질에 있어서 당대 멕시코에서도 손꼽을 만한 수준이었다. 미겔 카브레라가 그린 소르 후아나 초상화(1750)에 따르면 그의 도서관에는 과학과 문학, 신학과 고전, 고대 지식과 동시대 지식을 대표하는 책들이 즐비하다.

소르 후아나가 자신의 책이며 모든 소유물을 내다팔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지를 일깨우고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한 가지 목표에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글을 쓰고자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가르치고자 함이겠습니까. (이는 제 꼴사나운 교만을 드러낼 뿐이죠.) 다만 무

지에서 깨어나게 될지 알고자 저는 공부할 뿐입니다.” (《소르 필로테아 데 라 크루스에게 부치는 답변》)

지성에 호소하는 소르 후아나의 대의는 “지성의 유익은 존재의 유익”이라는, 당대 지식인의 한 사람 그라시안의 정신과도 깊은 연대를 이루기도 한다.

소르 후아나는 최선을 다해 공부에 매진했으며, 그의 공부의 목적은 다름 아닌 신학이었다. 그에게 “유일한 선생님은 말 못하는 책이요, 유일한 공부 친구는 느낄 줄 모르는 잉크 병”이었다.

소르 후아나는 시구엔사 이 콩고라를 비롯한 당대의 지식인들과 활발히 교류했고, 신학적인 면에서 왕성한 지적 작업을 했는가 하면, 시와 희곡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수녀원에서 마련하는 여러 행사에서 연극을 올리기도 했다.

소르 후아나의 삶과 작업에서 뚜렷한 것은 소르 후아나가 걸 어간 세계가 때로는 적대적인 성격을 띠면서 서로 교차해 있다는 점이다(Howe: 161). 그는 멕시코에서 태어난 수녀로서 스페인 바로크 스타일로 세속적인 연애시를 썼다. 그는 비범한 지성을 자랑하는 여인으로서 남성이 주도하는 지식 세계에 뛰어들었다. 그는 ‘교회의 딸’이었으며 그가 몸담은 바로 그 제도권의 지도자들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메리카 대륙의 한 여성으로서 유럽 고전 시대의 찬란한 여성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계통, 출생, 그리고 지성 각각의 상황은 그로 하여금 대립하는 세계들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다. 새 것과 옛 것, 합법과 불법,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 앎과 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남성과 여성에서.

이들 대립하는 세계에서 살아간 소르 후아나의 삶에서 중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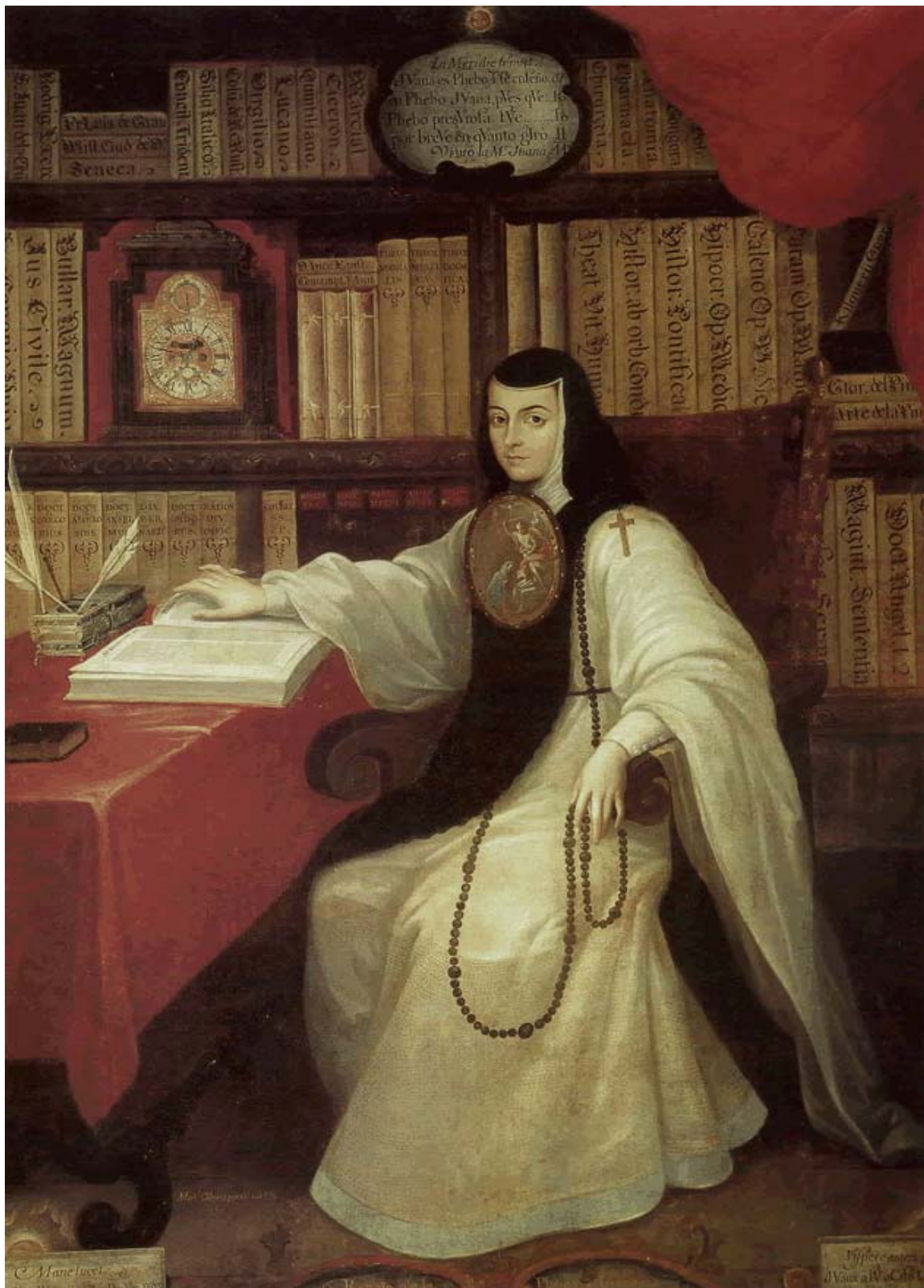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비범한 지성이었다. 그는 이 비범한 지성으로서 세계와 정면 대결을 펼쳤다.

소르 후아나는 “신학적·철학적 담론으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다 못해, [...] 과감히 펜을 들어 이들 분야에 내재한 성차별적 구조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 두 분야 모두에서 학식을 쌓았다” (Espín & Nickoloff: 326). 일개 수녀가 신학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결국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진 그의 작업에 관해 종교재판이 열렸고, 소르 후아나는 문학적 작업과 신학적 저작 활동의 영역에서는 영원히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고 만다. 1693년, 죽음을 맞기 불과 두 해 전의 일이다.

그의 지적 작업은 돌연 중단되고 말았으나, 그때까지의 행보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다. 그는 일개 수녀의 신분에도 머물지 않고 왕성한 지적 작업을 펼쳐 당대 멕시코에서 가장 일급의 학자요 작가로 활약했다. 그러다 그러한 지성의 절정에서 갑작스럽게 절필을 선언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빼어난 지성과 갑작스러운 종지부라는 견지에서 소르 후아나의 삶을 한국의 번역문화가 전해린의 삶과 겹쳐 읽을 수 있다.

소르 후아나와 전해린, 시대와 불화한 두 여인

삶에 투철하게 임했으나 삶에의 의지보다 자기 부정의 의지가 강해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에까지 이른 전해린(1934. 1. 1.~1965. 1. 10.). 그의 떠난 자리가 더욱 아쉽고 더 행하게 커보이는 것은 그가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지적인 노력과 지적인 성실성을 보여 주었고 무섭도록 준엄한 비평의 칼날을 자기에게 겨눴기 때문이다. “에로스’—닿을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의 추



소르 후아나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다. 미겔 카르베라의 초상화(1750)

구—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그저 좀 교활한 동물일 뿐이다”(1959년 1월 15일의 일기). 그는 자신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 자신의 말마따나 그의 삶에서 “일순도 김 나간 사이다같이 무미한 순간이라곤 없었다.”

소르 후아나도 마찬가지다. 그는 (1693년 여전히 의혹에 싸인 침묵과 절필이 있기까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이성이 자기를 밀고 나가, 당대의 실력자의 발언에도 개의치 않고 이의를 제기하고(《아테네 여신의 지혜에 필적하는 편지》, 1690) 자신에게 공격이 가해져 올 때 감연히 반박 논문을 작성하기까지 했다(《소르 필로테아 데 라 크루스에게 보내는 답장》, 1691).

그렇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배움에 목숨을 건 소르 후아나에게 가장 적대적인 세력은 대놓고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아끼고 돌봐 주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이들은 여자는 이런 공부가 합당하지 않다면서, 거룩한 무지가 여자의 본분이라고 훈계하며 소르 후아나의 숨통을 조였다.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은 다름아닌 소르 후아나가 속한 가톨릭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해 수녀들과 성직자, 그리고 그가 교류하던 부왕청의 남성들과 여성들이었다.

전해린은 자신의 의지가 세상의 평범성과 일상성에 묻혀 희석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기를 죽음에까지 내몰았다. 소르 후아나는 자기 시대의 불리함을 깨닫고 절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다. 글 쓰는 사람에게 절필이란 스스로 부과하는 가장 커다란 징계다. 스스로 선택한 자기 유폐와 자기 파괴다.

소르 후아나와 전해린은 어쩌서 절필과 자기 파괴의 길을 선택한 것일까. 소르 후아나의 경우 침묵과 절필은 실제로는 강요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으므로, 두 사람 다 세상과의 싸움의 끝자락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자기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실패를 말함일까? 겉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허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작가의 자기 파괴는 실패의 고백이 아니라, 그만큼 치열하게 전투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그만큼 자기를 밀어붙였으므로 침묵과 자기 파괴의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러한 데까지도 이르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선에서 멈춰 그 싸움을 거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평이함과 평범함은 애초에 그들의 몫이 아니었다. 그들은 싸움을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은 투쟁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

전혜린이 가뭇없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땀 뚫린 마음을 어찌할 바 몰라 하면서 그의 삶을 추억하고 함께 아파한다. 그 상처를 함께 느낀다. 그가 먼저 온 몸을 던져 자기의 견해와 입장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소르 후아나의 느닷없는 절필도 마찬가지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의 빼어난 지성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시대적 한계를 독자들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한 작가의 창의성을 말살한 시대를 아파하고 그를 동정하고 그의 삶의 남은 나날의 침묵에 공명을 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그의 삶과 문학과 작업에 대해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버지니아 울프보다도 훨씬 앞서서 시대를 앞서 깨어 있었던 작가 소르 후아나. 외로이 떠있는 별처럼 도드라진 그의 삶과 자취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련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이 밤과도 같은 세상에서.



서른 한 해 짧은 생을 살고 간 전해린을 아직도 추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르 후아나와 전해린, 그들의 마지막 선택

소르 후아나와 전해린. 각기 43세, 31세 둘 다 삶의 궤적이 너무도 짧았다. 소르 후아나는 침묵을 강요당했으나 생의 긍정에 몸을 던지며 페스트에 맞서 환자를 돌보다 숨졌다. 전해린은 외부 환경이 가한 특별한 구속은 없었으나 스스로 삶을 엮어마다 돌연 영원한 작별을 하고 말았다. 전해린이 지성적인 귀족주의의 멧에 걸린 채 자기 파괴를 하며 스스로의 입지를 옥죄었다는 평가도 있다.

전해린은 요절한 천재의 전형(“1세기에 한 번쯤 나올 희귀한 천재”라는 소릴 들었다)을 보여 주면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일종의 컬트가 되어 그의 글을 읽고 그의 자취를 따라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고 있다. 한편 소르 후아나의 삶에서 우리는 17세기 식민지 멕시코라고 하는 시대적·지리적 한계가 그의 정신세계를 옅어매는 정황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어난 지성으로 당대의 지식인 대열에 과감히 합류할 수 있었던 그의 열의와 투쟁을 관전할 수 있다. 자기 세계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하자면, 전해린이 아쉽게도 자신만의 고유한 작업이라고 내세울 만한 작품을 독자들에게 선보이지 못했다는 게 이채롭다. 반면, 소르 후아나는 시와 희곡이라는 장르 그리고 신학이라는 학문 영역에서 독자들에게 각인된 영향력이 심대하다. 그의 논의는 시대를 앞선다. 그는 식민지 시대 멕시코 바로크의 독특한 경향성을 자신의 작품 안에 담아 창의적이고 진보적인 의견을 담았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전해린과는 달리 시, 희곡, 신학에서 제 역할을 감당했다.

결국 두 사람 가운데 통합적인 세계를 완성한 사람은 소르 후아나였다. 이는 그의 완성된 정신과 경력을 통해 미루어 볼 수

있는 바다. 소르 후아나는 당대 사람들의 비평에도 아랑곳없이
 꾀꾀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고 자신의 논지에서 그 입장을 확연
 히 고수했다. 어쩌면 그의 통합성은 침묵의 강요라는 사건이 있
 어서 더욱 선명하게 기억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해린
 이 실패한 지점에서 소르 후아나가 한 발 앞선 대목이라고 하겠
 다. 적어도 소르 후아나는 창작에 성공했다. 그것만으로도 삶의
 완결성과 통합성에서 소르 후아나가 한 수 앞섰다.

소르 후아나에게 닥친 침묵의 강요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까지 합일된 시각이 없다. 멕시코의 작가 옥타비오 파스는
 이를 고독이라는 시각으로 풀이한다. 즉, 소르 후아나의 절대 고
 독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시키고 모든 서적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고 수녀 고유의 본분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자에 손스가 분석한 대로, 소르 후아나는 고독에 밀려 절필을
 선언했다기보다, 주변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안
 해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가산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Schons: 38-60). 다시 말해 소
 르 후아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의 통일성이라는 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가 숨지기 전 몇 해 동안 지속적으로 멕시코
 에 홍수와 기근 그리고 페스트가 나돌았다. 외부적으로 국난에
 처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온 땅을 뒤덮는 시대 상황에 꼭
 들어맞게 하필이면 자신의 학문적인 역정도 위기에 처했다. (이는
 매우 극적이다.) 소르 후아나에게는 어떠한 결단이 필요했다. 교
 회와의 마찰과 갈등, 눈앞에 전개되는 고통스러운 현실. 교회가
 거룩한 삶에 헌신할 것을 그에게 주문했을 적에, 그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됐을 것이다. 그는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무소
 유의 삶을 선언하고 거룩에의 길로 “날아가게”(소르 후아나의
 고백 신부 안토니오 누녜스 데 미란다의 전기작가 후안 데 오비

에도의 표현) 된다.

그의 절필이 고독에서 또는 거룩한 결단에서 기인했다는 설명에 덧붙여, 소르 후아나의 삶에서 신앙이 차지한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신앙에서의 완전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명성과 부, 이런 것이 하찮게 생각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1:7). 소르 후아나는 이 땅에서의 상급에 연연치 않고 더 나은 상급, 하나님의 아드님이 직접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그때까지 일궈 온 모든 노력과 작업을 내려놓고 완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가 페스트의 공격으로 쓰러지는 날은 그의 육체와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신과의 합일이 이뤄진 날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전해린은 신에 의한 자기 구원을 바라지 않았다. 이는 실존주의자로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자기 삶의 완성을 자기 안에서 찾고자 하는 것. 이는 필패다. 바스러지기 쉬운 인간의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의 삶 자체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부서지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그 길로 달려갔다. 적어도 그는 논리적으로 충족적이고 통합된 삶을 살았다. 자신의 통합적 세계관이 자신을 자기 구원이 아닌 자기 파괴의 길로 달리게 해도 그 길에서 비겁하게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자의 삶은 가슴이 서늘할 만큼 우리에게 호소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전헤린 컬트’가 존재하고 필자 또한 그에 대해 이렇게 글 몇 줄로 그를 추억하는 것이다.

자기 구원의 길로 나아가든(소르 후아나의 경우) 자기 파괴의 길로 달려가든(전헤린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그야말

로 목숨을 다할 만큼 충실했던 두 여인이 있었다. 두 사람이 남기고 간 삶에서 쓰라린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들 안에서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나만은 아닐 것이다.□

김요한 - 번역가. 『세계 지도의 역사』 등을 옮겼다.
